

수험 자녀위한 학부모 기도행진 계속 돼

12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초등부실에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힘이 있었다. 12월에 걸쳐 진행되는 기도회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김현령 전도사는 “하나님앞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과 나, 자녀와 나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진실되이 돌아보는 또 다른 모습의 기도시간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다. 10월9일 말씀은 빌 1:1 ~ 11까지로 갈급한 마음이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기쁨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세상에 치우치지않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또 수능 때까지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예쁜 묵상노트를 나누어 주신다고 한다. 날마다 한쪽씩 읽고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이 묵상 노트는 수험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것이다. 수험생들을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전도단 King's Kids, King's Teens 접수마감되어

예수전도단이 만든 King's Kids는 91년부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7세에서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이며 16~17주 과정이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주님의교회에서 11,12일 접수마감되었다. King's Kids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시작으로 연령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1시간 30분동안 강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묵상과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가 같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심한 세대차로 인한 갈등을 융화시켜 가정회복을 가져오고 있다. 소그룹시간에는 부모들은 같이 모여 생각을 나누게 되는데 서로에게 많은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한다. 강의안에는 필요에 따라 자존감, 정체성, 이성교제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4면에서 계속)

사랑의 헌혈, 오늘 교회앞뜰에서

국내선교3위원회 의료선교부 주관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교회앞뜰에서 있을 예정이다. 적십자사의 협조를 얻어 헌혈승합차량이 2대 오게 된다. 헌혈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정도이며, 헌혈증서와 헌혈후 혈액검사결과가 1주일안에 집으로 통보되므로 혈액검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군산모자원 기쁜잔치 시설개방의 날 행사열려

10월 13일 오후 4시, 김미숙 집사(5-2구역)가 원장으로 있는 군산 소재 신광 모자원을 우동운 목사, 성백술 장로, 해바라기의 이광준, 조성곤 집사 그리고 김용남 집사가 구역의 조선연 집사 부부와 함께 방문하였다. 열심히 시설을 설명하는 김미숙 집사의 모습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힘이 느껴졌다. (2면에서 계속)



2005년 교회요람 제작과정을 안내합니다

1.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 바랍니다.

2005년 교회요람에 들어갈 교인사진을 11월14일까지 매주일 촬영합니다. 내년 교회요람은 칼라로 제작되며, 1월중 배부할 예정입니다.

11월14일 주일까지 6주간, 1층 설만 한물가 옆 계단옆에서 매주일 오전 8:30부터 오후 2:00까지 무료사진관이 운영되니 모든 성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진으로 내신 분도 다시 사진을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요람은 디지털사진으로 작업합니다. 사진을 스캔과 원색분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게 되는 까닭에, 이번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촬영을 하여 시간과 예산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내기보다는 무료사진관에서 직접 사진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적열람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주일 오전 8:30부터 오후 1:30까지 1층 좌우복도에 교적부문 자료가 게시됩니다. 게시물은 흑백으로 출력됩니다.

모든 교우들은 본인의 사진,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후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직자(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를 대상으로 교회요람 전체 내용 열람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일 오전 8:30부터 오후 2:30까지 4층 당회원실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직명단을 비롯한 부서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인표기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회출석을 1년이상 못하거나 교구 사역자와 연락되지 않아 출석이 확인되지 않을 때, 교회요람이 1년용인 관계로 2005년 교회요람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적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시 출석확인되면 이듬해 요람에 실립니다.

② 동명이인 교우의 이름뒤의 A,B는 그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다시 조정합니다.

③ 타교회에서 장로임직한 경우, 이명서류를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당회승인 후 협동장로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분란을 비워둡니다.

주님의교회 교우들에게 유익한 2005년도 교회요람이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2005교회요람위원회

비전팀,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 주제로 초청강연기획

비전팀에서는 청소년사역의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비전팀은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여러차례의 모임과 공개강좌와 현장방문을 가졌다. 지난 7월 4일자 함즐함울에 비전팀의 활동에 대한 특집기사가 소개된 바 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간디학교의 양희창교장, 동대문중학교의 강수환선생, 한동대 김영애사모를 초청하게 된다. (4면에서 계속)

한결같은 마음과 삶으로

5여선교회월례회

10월13일 5여선교회 월례회가 교회 지하 영아실에서 모였다. 언제 보아도 반가운 집사님들이 서로의 근황을 들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김현령 전도사가 렘 32:36~42, 왕하 6:1~7 말씀을 증거했다. 진퇴양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삶을 주신다고 했다. 또 우리의 희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채워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근심하는 부분이 자녀 문제이든, 재물에 관한 문제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넉넉히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회원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찬양을 올리고, 저렴하지만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아쉽지만 다음 월례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청년 리더쉽 학교

10월에 오픈

기존의 토요일기도모임에서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은 영성훈련학교와 리더쉽훈련학교 2개 학교가 개설되었고 첫째 주는

세계선교기도모임으로, 셋째 주는 4부예배 새벽이슬이 찬양집회를 연다. 이를 하게 된 동기는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학기제로 운영될 예정으로 다음 학기에는 단기선교훈련학교도 개설될 예정이다.

지금 학교에 지원한 인원은 약 50명정도이며 이 학기말에 이들만의 캠프를 2박 3일의 일정으로 계획하게 된다. 지금은 첫 출발이기에 청년부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음 학기에는 장년들의 등록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영성훈련학교의 강 의자는 이진호 목사(Fuller 신학교 선교영성학 박사), 윤구행 선교사(영성 목회자, 캄보

디아 선교사), 이강혁 전도사(찬양사역자, 좋은 씨앗), 윤은성 목사이며 강의내용은 영성이란 무엇인가에서 비롯하여 직접 영성훈련을 받게 된다. 리더쉽 학교 강의자는 이반석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총무, 국제공인회계사), 이승률 회장(반도환경개발 대표, 동북아 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윤구행 목사(영성 목회자, 캄보디아 선교사), 윤은성 목사로서 이루어지며 강의내용은 동북아 정세와 기독교 청년의 비전, 도산 안창호와 리더쉽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듯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있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진행중에 있다.

함글함글 100호 축하메시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로 12:15) 라는 귀절에 나오는 네 글자를 이용하여 만든 이름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함글함글’이 통권 제 1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글함글은 1996년 8월부터 이재철 목사님께서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발간사’를 써주시고, 이재원 장로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서로간의 관계 회복을 갖게 하시고 특히 교회에서 주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함글함글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 소망’을 싣고 주님의교회 남녀연합선교회 명의로 격월간마다 발간되었습니다.

‘함글함글’은 그동안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 의해 쓰여진 목회자칼럼, 시론, 수필, 간증, 신앙클리닉, 시 등을 통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고, 성도들의 영성을 키우는 데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 동안 주님의교회 출판부장으로서 편집위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신앙과 체험이 담긴 소중한 원고들을 얻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함글함글’이 격월간마다 발행됨으로 인해 교회 소식과 교인들의 동정을 전하는 소식지로서의 성격보다는 목사님들

과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성이 체화된 글을 싣는 문예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편집위원들이 한정된 지면과 주님의교회 목회방향 등을 이유로 원고들 가운데 일부분을 과감히(?) 삭제·수정하여 본의 아니게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함글함글’이 2003년도부터는 매주 발간됨으로 인해 성도들의 다양한 체험과 의견을 싣는 문예지로서의 성격보다는 소식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나 ‘함글함글’이 제 100호를 맞이한 이후부터는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성도 상호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믿음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보다 따뜻함과 정감이 느껴지는, 진정 이름에 걸맞는 ‘함글함글’이 되기를 감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회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기사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함글함글 편집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김완중 장로

(1면에 이어서)

군산모자원 기쁜잔치 시설개방의 날 행사열려

‘현재 여기에는 56 모자 가구 160명이 사는데 말하자면

가족이 해체되기 전의 마지막 정거장이예요. 남편이 무슨 이유로든 가정을 버리고 떠나고 난 뒤 아내가 자식과 함께 마지막까지 버티 보다가 안되면 드디어 애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지고 아내는 어디론가 가면서 한 가정의 최종 분해가 끝나는거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소년 소녀 가장에는 관심이 많지만 모자들에게는 엄마하고라도 같이 있으니 훨씬 형편이 나은게 아니냐고 생각해요 누군가 도와서 여기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요즘 처럼 너무 많이 깨지는 가정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데...” 김미숙 집사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 모자원을 물려받고 일주일 중 3일은 군산에서, 4일은 서울에서 왕복 생활하며 2년째 거의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역식구끼리는 김집사가 재산이 아니라 십자가를 물려 받았다고 말한다. 김집사의 안내로 중 3 외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정연선 집사의 6평짜리 방을 방문했다. 너무 좁아 우리 일행이 다 들어가지도 못 할 정도였지만 서울에서 귀한 손님들의 방문과 우목사님의 기도에도 계속 눈물만 흘렸다. 원래 시설 개방 행사는 모자원 마당에서 하려고 했으나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불상사도 염려되어 인근 예식장을 후원받아 좌석이 거의 차는 400여 명의 손님들의 잔치로 열렸다. 특히 동행한 해바라기의 인기는 높아서 공연 후 여기저기서 싸인공세를 받았다. 모자원의 현 기도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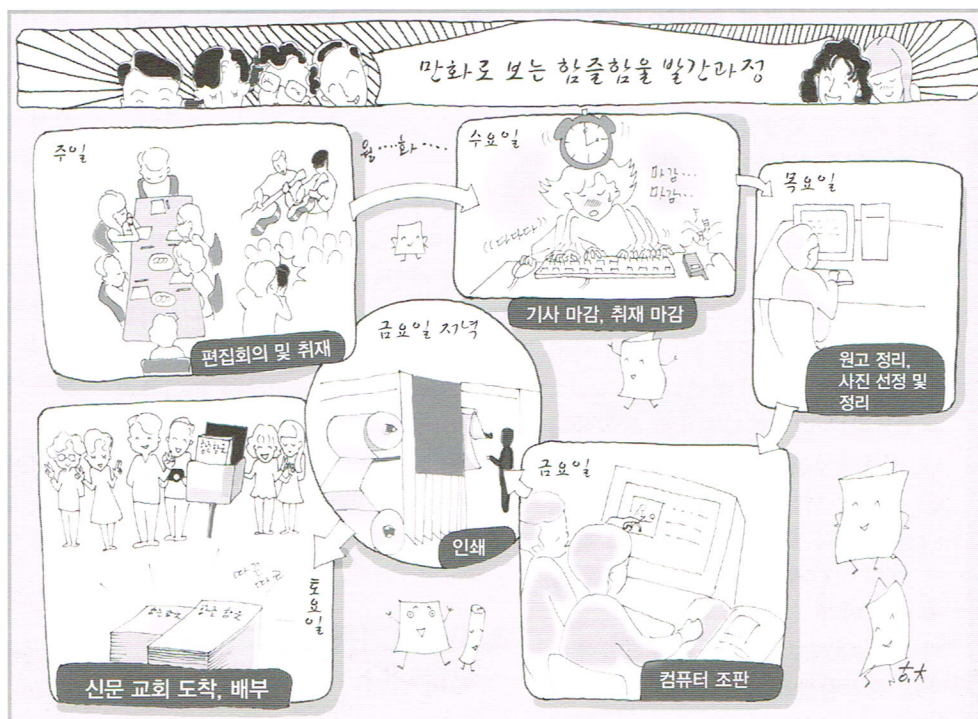
- 수용 모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새 생활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
- 국민 모자들에게 좀 더 많은 후원금
- 너무 낡은 숙소들을 개량 할 수 있는 지원
-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봉고차 한대
- 이번 성탄절 때 작년 같은 따뜻한 선물

최창섭 장로,

‘축구중개 31년 복음전하며’ 기독교보에 소개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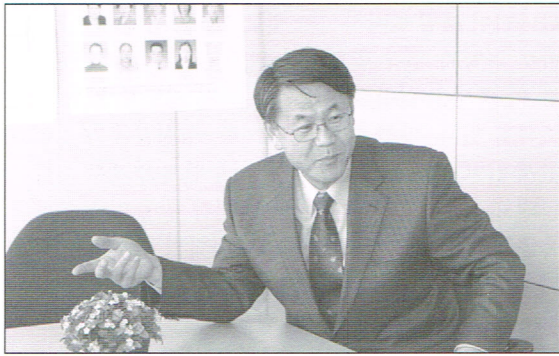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신문 한국기독교보에는 삶과 신앙부분란에 평신도 ‘복음’을 전하는 아나운서 최창섭 장로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이 기사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축구선수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차범근 집사(충신교회)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한 최 장로는 당시, 국내 방송3사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고 전한 뒤 그가 천직으로 알고 감당해 온 아나운서 경력 31년을 되짚어보며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발산해왔던 ‘달란트’를 통해 어떻게 인도해주셨는지 전했다. 최대 고비를 맞았던 8년 전에

는 목에 치명적 이상이 발생해 1차 수술을 받았던 때 별 차도가 없어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기도하고 식이요법을 통해 기적같이 병이 완치되는 체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최창섭 장로는 방송인으로 한국 방송계에 기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를 선교를 위해 사용할 계획도 전했다.



함즐함울 100호특집 인터뷰/ 김화수 목사에게 듣는다

그시절 그때의 함즐함울은...



함글함울 만든 동기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주님의 교회 사역자로 함께 있었을 뿐이다. 원래 2남인지 3남인지 남신교회 회지가 발간되고 있었는데 그 회지가 발전되어 함줄함울이 출간되게 되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여러 기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서 활동하거나 취재하지 못하고 소수 인원이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매어달려 부탁하고 사정해서 함줄함울이 나왔었다.(웃음) 간증, 시 등 다양하게 실으려 했다. 또 교회에 감춰있는 스토리를 실었다. 그야말로 함줄함울(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름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되려 노력했다. 이 일을 위해 교역자들도 돌아가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교육자 없이 평신도 주관으로 초창기는 A4용지 2면이었는데 조금 있다 4면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된다. 93년 이전에는 '나눔의(?) 소식'이란 이름으로 일년에 두세 번 나왔다. 함줄함울이 발간된 그 해에 함께 하신 분은 최상인 집사님, 이희숙 권사님, 천경우 집사님, 조원호 집사님 등이다. 여러 분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다. '함줄함울'이름은 이재철 목사님 아니면 이희숙

권사님이 만드신 것으로 기억한다. 이름을 짓고서 함께 붙들고 기뻐했었다.

에피소드

그 당시 안사루엘 목사님이 쓰신 글이 연재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내용은 토막소식을 전하는 형식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회화화해서 해학적으로 그려 아주 즐거웠다.

오كل랜드 주님의교회 함즐함울에 대해

제가 부임할 그 당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회학교시간과 예배시간이 겹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설교문을 공급하기 위해 함즐함울이 만들어졌다. 제가 99년 2월에 부임해서 4월에 함즐함울이 시작되었으니 약 5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예배가 1,2,3부 예배까지 생겨 교사들이 다른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설교지 뿐만 아니라 소식지로까지 발전되었다.

함글함울에 대한 소감이나 격려의 말씀

함즐함울은 주님의 교회의 얼굴로 생각되어진다. 지금도 깔끔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기에 참 좋다. 그렇지만 외모만 단장하고 꾸미면 맛이 없다. 외적인 모양만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감 있는 신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클랜드 주님의교회는 새가족이 오거나 방문객들이 교회를 찾으면 함즐함울을 A4봉투에 담아서 드린다. 함즐함울에 목사님 설교와 교육프로그램 등 모두 들어있어 주님의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꿈꾸는지 알 수 있다. 교회를 읽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곳 주님의 교회의 함줄함
울도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신문을 읽고 교회에 나가
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지금의 함줄함
울 아주 좋아보인다. 느낌이 좋다. 목사님과 팀원들이
함해서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근황

서울 주님의교회의 정신과 같은 사역방향 유지하고 있다. 오كل랜드 주님의 교회는 이제 역사가 9년이 되어 간다. 처음 1년은 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만 곧 자립하여 이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기도해주셔서 서울 주님의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게 되고 자립하여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 지금은 예배당 건립중이라 선교구제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일전엔 재정 총액의 34%가 선교구제비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 내년 2월이면 우리 자체 예배당으로 입당할 예정이다. 장로님을 비롯한 임직자들이 주님이 주신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교우들은 우리 교회하면 무엇이 생각하는가? 질문을 받으면 ‘말씀이 가장 자랑거리다’, ‘주님의교회 옷은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 교회 내엔 장년부 20과정 청년부 중, 고등부 8과정 등 28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민교회이기에 말씀을 통한 위로와 말씀을 통한 소망을 함께 꿈꾸고자 여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풀타임 사역자 3명, 파트 2명, 협동목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8개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평신도 리더들이 있기 때문이다. 오كل랜드 주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그 변화가 수성되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다. 서울 주님의 교회는 내 사역의 고향이다. 생각만 해도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정겹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의 꿀을 먹고 사는데 서울 주님의 교회 가족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이 지면을 빌어 서울 주님의 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어와나 시리즈 ①

‘주님의교회 어와나’가 곧 시작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AWANA CLUB 프로그램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여름에는 교육부를 통해 십여명의 교사 및 재직자들이 미국 시카고의 어와나 본부를 방문하였고, 지난 8월에는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을 담당할 유영안 교육전도사가 미국 아틀랜타에서 열린 국제 어와나 컨퍼런스(International Awana Conference)에 참석하고, 시카고의 본부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유영안 전도사는 7월부터 이미 시작된 디렉터, 리더 교육을 계속 진행하였다. 유영안 전도사와 12명의 깊이 헌신되어 있는 교사들은 이 뜻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준비를 해왔다. 지금은 모든 교육일정을 마치고 홍보기획 등 마지막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어와나 리더 교육이 있었던 7월~10월의 4개월간 많은 교인들이 어와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는데 10월 중에 열릴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어와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교회 어와나 클럽은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우리의 차세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양육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이라는 뜻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어와나는 약 50년의 역사 동안 연구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청소년 선교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60만 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주 어와나 클럽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약 40여개의 교회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학교를 도와 많은 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다. 어와나는 취학전 1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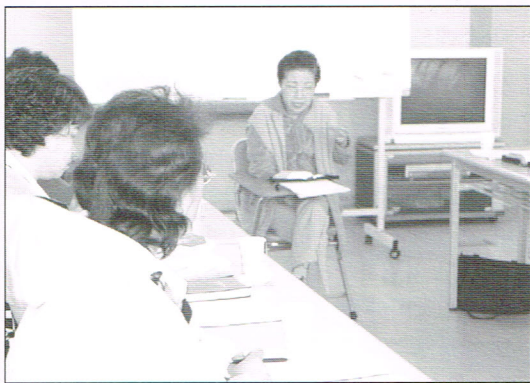
이번 주님의교회에서 시작하는 클럽은 그 1단계인 볼티단이다.

볼티단은 정규학교 입학 1년 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와나 클럽은 취학 전 클럽의 교육의 기초에 만들어 졌다. 커리큘럼의 목적은 믿지않는 소년 소녀들에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볼티단에서 소년, 소녀들은 인격적인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제 곧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AWAVA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양육과목탐방/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여인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열매맺는 삶을 위하여, 2학기 양육클래스가 시작
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다.

〈믿음의 여인들〉은 지난 9월 14일 10명으로 출발하
여 현재 14명이 매주 화요일에 5층 청년부2실에서 모
이고 있다. 강의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창세
기 1장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대개
획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있으라' 하시면 빛이 다가
오고, '내라' 하시면 땅이 열리고, '이루라' 하시면
광명체가 비추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피조물 모

두가 궁극적으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거
룩과 영원한 안식의 날에 들어가기까지 복을 내리고
계시는 그 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두 번
째 시간은 생명나무를 거들떠보지 않은 체로 하나님
의 영역인 선악시비를 따지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
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자의 어머니'가 된 하와와
첫 아담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우선 스스로를 처서
정복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사랑
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써 잃어버
린 에덴을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인 아버지 집
에 들어가는 길을 만났다.

길을 안다고 해서 목적지에 다 도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만 한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
진들이 개척한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기로 했다.
특히 뚜렷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정도
를 걸어 간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기로 했다. 구약
에서 드보라와 바락, 라합과 룻, 슬로브핫의 딸들, 에
스더, 그리고 신약에서 성모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
다, 막달라 마리아, 다비다와 루디아, 로이스와 유니
게 등을 만나는 가운데 말씀이 진리로만 남아 있지
않고, 행하는 나의 사건으로 사실화되어 갈 것을 기
대한다. 그리하여 열두 번째 우리의 만남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된 '내'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부르게 될 찬양과 영광의 멋진 '나의 아가
(雅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만물을 지으신 것도
바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음으
로 이 과정은 일방적인 강의가 되지 않도록 모두 협
조하고 있다. 말씀 묵상 형식으로, 성경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깨달음이나 생각을 나누면서 주제를 이끌
어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읽기전 활동으로 연상
폭풍일으키기, 읽기중 활동으로 단락별 중심내용 정
리 및 의문점 나누기, 읽기후 활동으로 오늘 만난 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시는 말씀·깨달음·교훈, 그
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기 등으
로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은 열시 반부터 열두 시 반까지인데 믿
음의 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시가 다 되어
서 아쉽게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재정을 맡을 정도
로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가롯 유다가 하루아침에 사
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정규 강좌에 더해서 말씀의 떡을 매일 먹기로 했
다. 각자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내용과 주일 설교말씀을 적용
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
다.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

정영환목사, "기도도 세분화 되어 효과적으로"

200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영아부
실에서 팀장, 부팀장의 모임이 정영환
목사와 함께 8명이 모여서 '야곱의 축복'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정영환 목사는 사
랑과 교제의 통로로 시작하여 지구촌 교
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깨달은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의교회도 앞으로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 말씀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세분화하여 헌신자
발굴과 훈련, 릴레이 사역, 골방사역, 연
합사역으로 나누어져야 한다. 중보기도
실에서 한 시간씩 하는 기도시간을 세분
화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할수 있는 방법
을 논하였고, 중보기도실은 아무나 들어
갈 수 없으며 공개되지 않는 곳이고 중
보기도 학교를 수료 후 사역에 사명을
갖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기도실은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로 중보기도 사역의 특성상 기도하
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내용
을 철저히 비밀을 지키게 해서 사탄으로
부터의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보
호하기 위함이다. 주일 예배시에 중보기
도 사역자들은 기도정명단이라고 해서
주일예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단이며,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
이다. 오전 11시가 되자 중보기도 사역
자들 23명이 모여 목사님의 성경봉독과
기도로 시작하였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오는 요셉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사막과 같은 기
후에 사는 사람들은 샘결에 있는 자들에
게는 축복이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과

연결해 볼때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담 넘은 가지에 달
린 열매를 누구든지 다 따서 먹을수 있
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중보기도 사역자
들은 가지가 무성해져서 모든 사람들에
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
는 자들이어야 하며 주님앞에 있는 우리
는 매일 매일 생명수를 먹고 나뭇가지를
많이 뺏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며 섬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몇 가
지를 놓고 통성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였
다. 맨 나중에는 손을 잡고 원으로 서서
사역자들을 위해 서로서로 기도하며 점
심은 김밥과 차를 마시며 담소하였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 드린다.

(1면에 이어서)

예수전도단 King's Kids, King's Teens 접수마감되어

King's Kids, King's Teens 가 생겨난 이
유는 이들을 열방의 지도자로 자라게 하
기 위함이다. 교회를 걸도는 아이들을
위해 교회의 보충수업을 맡아주어 토요
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양육해
주고자 한다. 프로그램에는 전도여행이
있다. 해외로 갈 경우는 3주이며 이번 2
학기에는 국내전도여행이 이루어져 하
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밝
아가는 여행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서효성간사는 이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
라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서약서를 작성
하는 등 엄격한 약속사항도 있으며 주중
에 나가는 숙제도 많고 시간 정해 기도
시간을 갖게 되며 정해진 기록도서도 읽
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한

교안에서 언어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
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1면에 이어서)

비전팀,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 주제로 초청강연기획

초청강연이 모두 끝난 후, 11월 14일 주
일에는 그동안 비전팀이 연구한 열매를
교인들과 나누는 'Vision Sunday' 를 계
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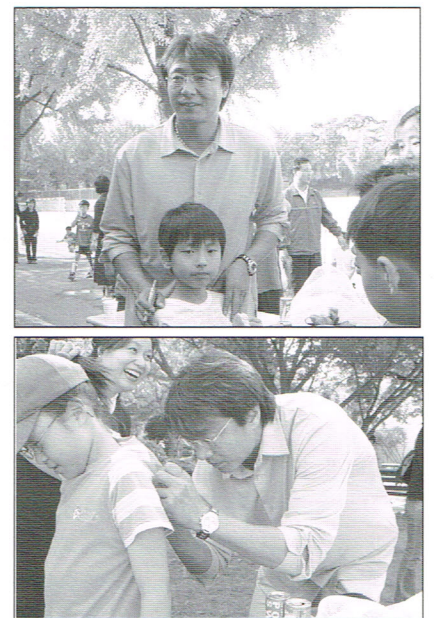
자세한 강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27일(수) 오후 7:30 - 8:30 중예배실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양희창 교장 (간디청소년학교)
10월 31일(주일) 오후 1:00 - 2:30 소예배실
『기독교사로서,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강수환 선생
(동대문중학교, YDCF대표간사)
11월 10일(수) 오후 7:30 - 8:30 중예배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김영애사모(한동대학교, '갈대상자' 저자)
11월 14일(주) 1-3부예배
『Vision Sunday』

세미나를 통해 중보기도사역 업그레이드

지난 10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지
구촌교회에서 주최한 "제9기 교회내 중
보기도세미나"에 정영환 목사, 중보기도
사역팀장 전은숙권사, 이해자, 이일금 집
사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10년 전부터 중보기도사역을 교회
안의 사역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지구촌

교회의 경험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재 우리 교회 중보기도사역은 2003년에
시작되었는데, 중보기도실을 중심으로 5
개 기도팀, 40여명의 사역자들이 헌신하
고 있으며, 현재 4기 중보기도학교가 진
행중이다. 앞으로 교인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체계화하고, 중보
기도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교회적으로 중보기
도하는 사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소년축구클럽 황선홍 선수오던 날

지난 10일, 유소년 축구클럽을 방문한
전 국가대표축구선수 황선홍에게 싸인
을 받기 위해 유소년축구클럽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은 유니폼의 어깨, 등에 싸인을 받
아가기도 하고 티셔츠와 핸드폰 등에도
싸인을 받았다. 그 후 황선홍과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